

붉은 반점이나 물때의 손질 방법

사용 중 수질이나 불순물 등으로 인해 본체 안쪽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물때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관리해주세요.

붉은반점 - 식용 식초를 10%정도 넣은 미지근한 물을 본체에 넣고 약 30분 후에 잘 씻어 주십시오.

까슬거리는 이물질 - 구연산을 1~2% 정도 넣은 미지근한 물에 본체를 넣고,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로 약 3시간 후 깨끗히 씻어 충분히 말려주십시오.

충분히 건조 시켜줍니다.

물 이외에 것을 넣어 사용한 경우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해 주세요.

주방용 표백제를 주의 표시에 따라 사용하고, 씻은 후에는 물기를 잘 털어내어 충분히 건조시켜주십시오. 다른 제품과 함께 세척 시 제품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항목을 잘 읽어주시고, 어느 경우에도 해당 되지 않는 경우는 고객센터에 문의 해주세요

증상	원인	대처방법
■ 음료(본체 안쪽·마개)가 냄새난다.	음료를 장시간 넣은 채로 두거나 본체 안쪽에 얼룩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손질방법'을 참고하여 손질해 주십시오.
■ 보온·보냉 효과가 없다.	충분히 뜨거운(차가운) 음료를 넣었습니까?	충분히 뜨거운(차가운) 음료를 올바른 양까지 넣으세요.

피코크 고객상담실

070-4681-3663

상담 가능 시간: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제품의 품질관리에는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제품에 관해 불명확한 점, 질문 등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개량/개선을 위해 사양의 일부를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러스트는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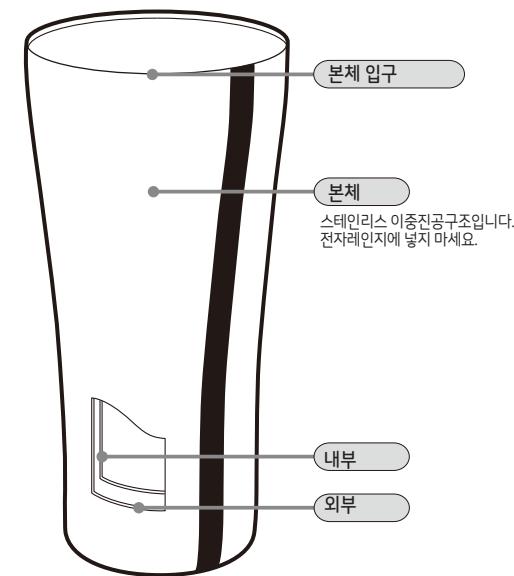
Peacock

비어 텀블러

ATD

사용 설명

피코크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주십시오.



설명서의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쉽게 꺼내어 볼 수 있는 곳에 소중히 보관해주세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세요.

누출이나 넘침은 화상이나 다른곳을 더럽히는 원인이 됩니다.

음료를 넣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스토브나 난로 등의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진공총 내부에서 물소리가 나는 경우 사용하지 말 것



보온보냉 성능이 저하될 우려 진공총에 고인 물이 본체 안쪽으로 스며 나올 수 있음

● 불안정한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 넘어져 음료가 흘러 화상이나 물건을 더럽히는 원인이 됩니다.

● 자동차 운전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운전자의 경우 운전에 대한 주의가 산만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개조나 분해, 수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냉동실에 넣지 마십시오. - 파손 및 보온(보냉)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스파크가 발생하여 전자레인지 고장과 제품의 변형, 변색의 원인

손질 방법

◆ 사용 후에는 반드시 당일에 손질한다.

◆ 세척 시엔 부드러운 스폰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악취, 때, 곰팡이를 방지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질해 주십시오.

본체 외측 본체를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고, 살짝 마른 천으로 수분을 닦아낸다.
 오랫동안 물에 담가 둔 뒤 세척하지 않습니다.

본체 내측 손잡이가 달린 스폰지 브러쉬 등으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충분히 건조 시켜주십시오.

주의사항

사용하시기 전에 잘 읽어보신 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녹이 슬거나 보냉 불량 등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신나·벤젠·금속 수세미·연마제·클렌저처럼 주방용 이외의 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체의 녹이나 흙집·고장 등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는 식기 세척기·식기 건조기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도장·인쇄·스티커 등이 벗겨지는 원인이 됩니다.

본체는 세척 후 물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 본체와 보호시트 사이에 틈새로 물이 들어가 녹이 슬거나 보냉 불량 등의 원인이 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깨끗하게 세척하여 얼룩을 충분히 제거한 후 충분히 건조시켜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한다.